

아스카무라



- 미즈타니 천연 염색 1
- 아스카의 고향 멘도야 2
- 아스카무라 석조물 투어 3
- 농가민박 고토리안 4

천연염색

천연염색이란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의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색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스카무라에 있는 '미즈타니 천연염색'에서 고대의 방법에 가까운 염색법을 실제로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 매력과 감상을 나노라의 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천연염색 체험교실'이라는 깃발로 표시된 미즈타니 천연염색. 건물 주변에는 알록달록한 예쁜 꽃들이 피어있습니다. 천연염색 체험을 하는 방에는, 무늬나 색이 각기 다르게 천연염색된 손수건이나 솔이 장식되어 있어서 매우 다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지혜



처음에 체험교실 선생님 이신 미즈타니 미치코(水谷道子)선생님께 천연염색의 특징이나 고대 사람들의 지혜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연염색으로 염색한 염색물의 색은 쉽게 빠져버리는 단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이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원료로 만들었다고 해도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염색물이 완성된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고대에는 색이 빠져도 여러 번 다시 염색할 수 있도록 단색 균일한 무늬의 염색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연염색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전해 온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에 옷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밤나무 잎을 달여 온몸에 뿌리거나, 그 달인 물에 염색한 바지를 입는 등을 한 후에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지혜가 쌓여 천연염색이 발전해 왔습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대 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무늬와 기법



이어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무늬와 기법에 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무라쿠모(村雲)라고 불리는 무늬는 원단을 둥근 봉에 감아 주름을 만든 다음 위쪽부터 강하게 조이고, 봉 그대로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무라쿠모 시보리'라는 훌치기염색기법으로 만듭니다. 염색된 무늬가 구름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 무지개, 파도, 대나무, 미쓰우로코문양 등 다양한 무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귀갑무늬는 고대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다양한 무늬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지만, 고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꽃 등을 보고 '저렇게 예쁜 무늬를 어떻게 하면 재현할 수 있을까'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천연염색의 기법은 점점 더 발전되어갔다고 합니다.

천연염색 체험

그리고, 드디어 미즈타니 선생님의 지도 아래 천연염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탕이 되는 원단으로 꽃무늬가 들어간 손수건을 골랐습니다. 무늬는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미쓰우로코문양으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원단을 접는 법을 배우고, 접은 원단 위아래에 판자를 끼워 고무줄로 튼튼하게 고정했습니다. 염색작업은 야외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홉 종류의 염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염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만든 염료만 사용하고 남은 염료는 모두 버리는 것이 천연염색의 사치스러운 점이라고, 미즈타니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알루미늄 호일로 염색하지 않는 부분을 감싸고, 염색 후에 금갈색으로 완성되는 양파껍질을 끓인 냄비에 원단을 접어 담가 색을 입혔습니다. 그 후에 알루미늄 호일을 떼서 물속에서 부드럽게 행구었습니다. "고대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쓰지 않았어요"라고 미즈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염색을 하고 해왔는지 상상해 보면 더 즐거워집니다.



다음으로 꼭두서니의 뿌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진홍색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에서 빨간색은 운수가 좋은 색입니다. 염색을 한 후에, 아까처럼 원단을 행구었습니다. 그리고는 꼭두서니와 조합이 좋은 자두로 만든 보라색을 골랐습니다. 접힌 원단 안쪽까지 염색이 잘 되도록 미즈타니 선생님과 협심해서 국자로 염료를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펼친 원단을 물속에서 행구었더니 마침내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손수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단을 펼쳐보니 상상 이상의 예쁜 색으로 염색되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끝으로

40년의 역사가 있는 미즈타니 천연염색교실은 고대부터 내려온 기법을 재현하고, 지금도 계속 그 기법을 지켜가며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고대 이야기를 들으며 염색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염색 작품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흥미가 있으신 분은 꼭 천연염색 체험을 해보시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보세요.



• 주소: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타치베 448
〒634-0143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立部 4 4 8
• <https://mizutani-kusakizome.com/>



'아스카의 고향 멘도야'는 창업 100년 이상 된 노포로서, 아스카 무라나 나라현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이번에는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향토요리도 나라의 매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노라의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대째 대표를 맡고 계시는 기타미 기미코(北海希美子) 님에게 가게와 아스카무라의 매력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1. 이 가게는 창업 몇 년째인가요? 그리고, 가게는 계속 아스카무라에 있었나요?

정확히 몇 년지는 모르지만, 창업으로부터 100년은 족히 넘었습니다. 가게는 여러 번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가게 위치는 창업 이래 계속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스카무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긴 역사가 있는 노포로서,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가게의 메뉴를 시대에 맞추어 바꿔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카무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었던 시절에는 햄박스테이크 등을 제공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런치메뉴, 도시락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스카 나베(전골)도 계절에 따라 전골에 넣는 야채도 바꾸고 있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제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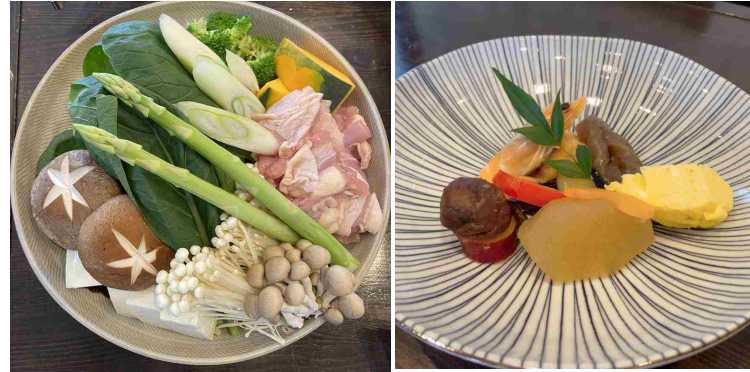


3.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은가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은 없으셨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 한국, 프랑스 등에서 온 관광객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은 손님이 줄고 매출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게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멘도야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골손님이나 오사카같이 먼 곳에서 오는 손님 등, 다양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다행히도 코로나19의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4. 아스카무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노라의 독자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스카무라에는 다카마쓰즈카 고분, 이시부타이 고분 등 일본 아스카시대의 사적이 수없이 많지만, 아스카무라의 풍경이나 공기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스카무라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아스카무라를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아스카 나베 코스요리를 먹어보았습니다. 코스요리에는 아스카 나베, 깨두부, 찜 요리, 감잎 초밥, 수제 와라비모찌, 계절 과일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특제 육수에 우유를 더해 만든 아스카 나베의 하얀 국물입니다. 단호박, 브로콜리, 두부,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소송채, 닭고기 등을 냄비에 넣어서 끓였더니 고소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팽이버섯과 아스파라거스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과 국물의 맛이 잘 어우러져 무척 맛있었습니다. 깨두부는 깨의 고소한 풍미와 툭툭 씹히는 식감에, 두부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운 휘귀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맵지 않은 전골은 이번에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아스카 나베는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해서 정말 먹기 좋았습니다. 나라의 향토요리에 흥미가 있으신 분께는 '멘도야'의 아스카 나베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긴 역사가 있는 아스카무라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며, 아스카 나베를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 주소 :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오카40
〒634-0111 奈良県 高市郡明日香村 岡40
• https://www.instagram.com/mendoya_2055/



기사 : 송 야방
(Yafang Xiong)



아스카무라 여기저기에는 각각의 전설이나 이야기를 가진 석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아스카무라 석조물들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사루이시(원숭이 돌)

'사루이시'라는 이름을 들으면 원숭이 모습의 돌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은 다섯 개의 사루이시중에서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개뿐입니다.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개는 아스카무라 옆의 다카토리마치에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아스카무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테쓰 아스카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의 기비히메노미코노하카(吉備姫王墓)앞에 있는 네 개의 사루이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부터 여자, 산노곤겐, 승려, 남자

사루이시는 7세기, 아스카시대의 제명천황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높이 약 1미터 정도 되는 석상입니다. 원숭이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사루이시라고 불리고 있으나 사실은 원숭이가 아닌 도래인을 본뜬 것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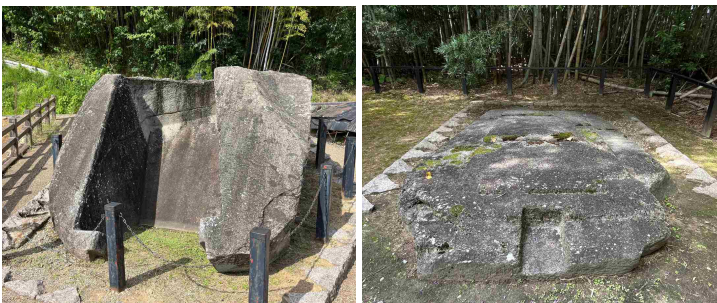
사루이시는 왼쪽부터 여자, 산노곤겐, 승려, 남자로 불리고 있는데, 각 석상의 특징으로부터 붙여진 애칭입니다. 그중 여자, 산노곤겐, 남자는 뒷면에 도깨비의 여러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뒷면은 보이지 않지만, 아스카 자료관에 있는 복제품은 뒷면도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서 사루이시를 보니, 왜 이러한 석조물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상상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며 사루이시를 감상하는 것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의 한 가지 아닐까요?

오니노 셋친(도깨비 변소)

오니노 마나이타(도깨비 도마)

'오니노 셋친'과 '오니노 마나이타'는 이름처럼 도깨비에 관한 전설을 가진 석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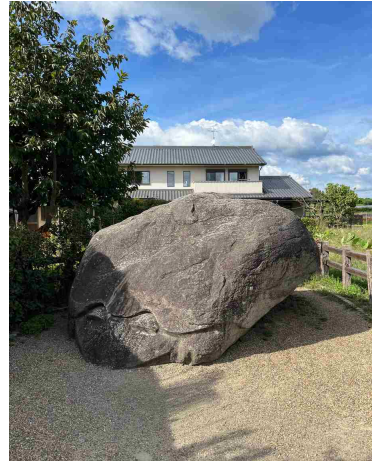
오니노 셋친

오니노 마나이타

이 석조물의 이름의 유래는 지역의 전설입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던 도깨비가 안개를 만든 다음, 길을 헤매고 있는 여행자를 '오니노 마나이타'위에서 요리를 하고, 배가 부른 후에 '오니노 셋친'에서 용변을 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이 근처를 지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메이시(거북이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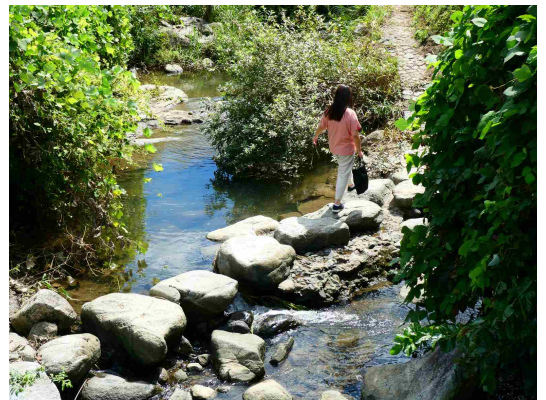
가메이시는 아스카무라를 대표하는 석조물 중 하나입니다. 가메이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진처럼 거북이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머러스한 생김새 덕에 아스카무라 관광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메이시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스카무라에 있던가와하라절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석이 아니었을까 하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가메이시는 귀여운 외관으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야마토(大和)가 호수였던 무렵, 호수의 건너편 다이마 지역과 가와하라 지역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긴 싸움의 결과, 호수의 물을 다이마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호수에 살고 있던 많은 거북이들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들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거북이의 모양을 돌에 새겨 공양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메이시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북쪽을 향해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동쪽을 향했고, 현재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이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다이마를 바라보게 되는 때에는, 야마토 분지(현재의 나라 분지)는 진흙 바다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카 강 징검다리

아스카 강 징검다리는 만엽집에도 실렸던 아스카 강의 돌다리입니다. 만엽 작가에게 이 돌다리는,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남녀가 숨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거나, 연인과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예로 쓰이는 등 많은 노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스카 강 징검다리(하류)

明日香川 明日も渡らむ石橋の
遠き心は思ほえぬかも

의미 : 아스카 강의 이름처럼 내일도 건너가자
돌다리같이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이처럼 특별히 의미 없는 그냥 돌같이 보이지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아스카무라 석조물 투어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아스카무라에는 몇 군데의 농가민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긴테츠 아스카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의 농가민박 '고토리안'을 소개합니다.

고토리안은 약 120년 전에 지어진 집을 예전 분위기는 그대로, 생활 설비는 사용하기 쉽게 리노베이션한 농가민박입니다. 일본의 고민가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옛날 그대로의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고토리안 방문이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취재에는 고토리안의 주인 오가와 이사오님이 고토리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거실

먼저, 거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옆에 큰 유리 미닫이문이 있어서 무척이나 개방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미닫이문 밖으로는, 고토리안의 자랑인 정원이 보였습니다. 방에서 그 정원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오가와님의 부인께서 수제 밤 조림을 내주셨습니다. 이 밤 조림은 고토리안에서 단 밤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밤을 맛보면서, 고토리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원

이 아름다운 정원이 오가와님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라고 합니다. 정원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있는 연못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고, 정원 안쪽에 들어가면 수령 백 년 정도 되는 훌륭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오가와님의 말에 따르면 벚꽃 시즌과 단풍 시즌이 제일 절경으로, 그 시기에는 예약이 쇠도한다고 합니다. 오가와님이 좋아하는 이 정원을 즐기는 방법은 킷마루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킷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을 감상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풍경을 느끼는 것이 오가와님이 추천하는 정원을 즐기는 법입니다.

일본식 방



정원을 감상 한 후에 안내해주신 일본식 방은 일본 쇼와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오가와님의 말에 의하면 이 일본식 방은 특히 가족단위의 손님이 좋아하시는 방이라고 합니다.

교토의 골동품 시장이나 다른 고민가로부터 가구와 소품들을 모아서 완성시킨,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의 방입니다. 일본 분들에게 옛날 기억을 되새기는 좋은 추억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예스러운 일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문화체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 다락방

2층에 올라가 보려고 하니 계단 밑이 서랍으로 되어있는, 처음 보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가와님에 의하면 이 계단식 서랍은 약 100년 전의 것으로, 교토의 골동품 시장에서 구하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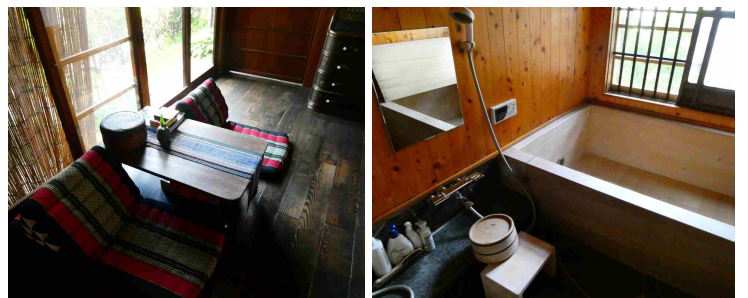
2층에 올라가는 계단

정취 있는 계단을 올라 2층에 올라가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사용되던 곳을 개조해서 다락방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며 잠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끝으로

주인 부부께서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손님이 체크아웃 하실 때에 '좋았다' 라고 한마디 건네주는 것과 손님이 노트에 방명록 한 문장 써주시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가와님이 생각하시는 아스카무라의 매력을 여쭙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이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스카무라의 풍부한 자연과 긴 역사 등이 아스카무라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도 사람이 많은 교토 등과 비교하면, 아스카무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와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스카는 일본의 낙원, 일본의 시작입니다. 꼭 아스카무라에 방문해주세요!"

- 주소 :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마유미 1473
〒634-0137 奈良県高市郡明日香村真弓 1 4 7 3
- <https://kotorian.jp/>



기사: 이영미
(Youngme Lee)

편집후기

「나노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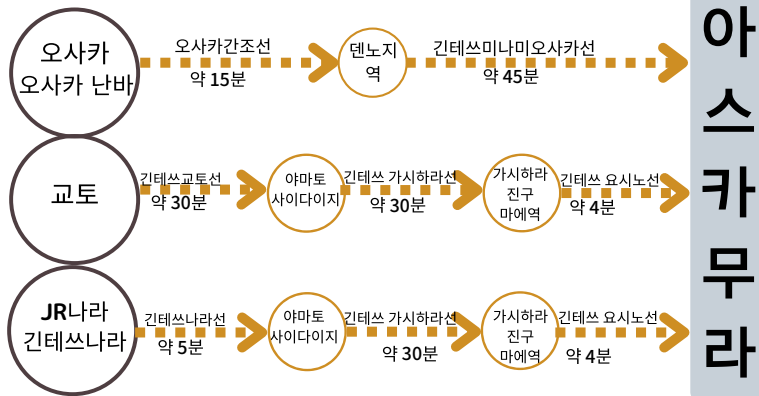
"나노라"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현민 여러분과 해외에서 오신 방문객들께 소개하기 위해, 저희가 나라현에서 찾은 매력과 흥미로운 곳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로 쓴 것입니다. 이 정보지를 통해 나라현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지도



오시는길

전철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오사카에서 약 1시간 10분
교토에서 약 1시간 30분
나라에서 약 1시간

} 아스카무라까지



송 야팡 (Yafang Xiong)(왼쪽)



나라는 중국과 연이 깊은 곳입니다. 나라에 오시면 역사를 접할 수 있고 향토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카무라에 있는 '미즈타니 천연 염색'을 취재했습니다. 식물을 사용해 손수건을 멋있게 염색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아스카의 고향 멘도야' 라는 향토요리를 파는 노포에도 다녀왔습니다.

아스카무라에는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발걸음을 옮겨서 아스카무라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이영미 (Youngme Lee)(오른쪽)



이번에 취재한 아스카무라는 긴 역사가 있고, 고대의 석조물 등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석조물 이외에도 많은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에 더해 풍부한 자연환경도 있어서, 정말로 마음이 치유 되는 지역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아스카무라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Special Thanks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미즈타니 천연염색,아스카의 고향 멘도야, 농가민박 고토리안, 아스카무라 사무소, 궁내청 서릉부 우네비능묘관리사무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奈の良』 나노라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발행 : 2022년 12월

본지에 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8501)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0742-27-8477

FAX: 0742-22-1260

